

EU의 국제문화관계 전략에 관한 고찰

윤 성 원*

〈국문초록〉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계기로 문화정책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 EU의 다년예산안 스케줄에 따라 편성되던 문화정책은 시기에 따라 명칭이 바뀌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는 분야들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초기의 문화정책은 지원 영역별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담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공연 및 행위예술, 또는 문학작품 번역을 지원하는 등 개별적인 문화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였고, 이는 2000년부터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정책적 방침에 따라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문화정책이 역점을 두는 핵심 분야가 문화 및 창조분야로 전환되고 있다. ‘창조적 유럽’ 구축을 목표로 하여 도입된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은 그동안 문화정책과 별개로 실행되어 오던 시청각정책을 편입시켜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 및 창조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EU는 대외관계에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공표하면서 ‘국제문화관계’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EU는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유럽적 문화공간(European Spaces of Culture)’을 전세계에 구축하여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부교수 (syoon@suwon.ac.kr)

주제어: 국제문화관계, 리스본조약, 유럽대외관계청, 창조적 유럽, 유럽적 문화공간, 네트워크, 문화 및 창조산업, 유닉, 문화외교

차 례

I. 서론	IV. EU 국제문화관계 전략의 대표사례: 유닉(EUNIC)
II. EU 문화정책의 전개	V. 결론
III. EU 문화정책의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 국제문화관계	

I. 서론

문화정책은 유럽통합 초기부터 공동체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정책영역은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 단일유럽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유럽 내 단일시장 형성 계획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유럽시민들의 유럽통합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유럽공동체 내부의 민주적 결핍(democratic deficit) 문제를 문화적 조치들로 극복해 보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¹⁾ 또한 1990년대 초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붕괴, 그리고 잇단 동유럽 국가들의 독립은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통합의 미래 비전을 새로이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그 결과 등장한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은 문화정책을 공식적인 정책영역으로 명문화하여 유럽통합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완전한 통합체를 지향함을 천명한 바 있다.

그 후 문화정책이 실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유럽연합(EU)에서의 문화

1) 1970~80년대 문화에 관한 공동체 차원의 논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윤성원, 「문화정책」, 이무성 편저, 『통합과 갈등의 유럽연합』 (높이깊이, 2017), 343-367쪽.

의 위상은 사뭇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2007년 “세계화된 세상에서 문화를 위한 유럽 아젠다(European Agenda for Culture in a globalising world)”²⁾라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EU의 국제관계에서 문화를 공식적으로 포함하였다. 같은 해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과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의 출범은 EU의 대외관계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³⁾ 또한 이사회에서도 2008년 결의문을 통해 문화협력과 문화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를 대외관계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⁴⁾ 이후 2016년에는 “국제문화관계를 위한 EU의 전략에 대하여(Towar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⁵⁾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국제관계에서 문화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천명함과 아울러 파트너 국가들과의 다양한 문화협력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으로 EU 회원국들의 문화기관과 문화 관련 부처를 연계하여 글로벌 차원의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화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EU의 국제문화관계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2년 도입된 EU 문화정책이 지난 3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오늘날 어떠한 과정으로 국제문화관계 전략의 핵심이 되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국제문화관계 전략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대표사례인 유닉(EUNIC)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on 'European Agenda for Culture in a globalising world',” COM(2007) 242 final.

3)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owar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JOIN(2016) 29 final, p.2.

4) Council Conclusions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external relations (2008/C 320/0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5) JOIN(2016) 29 final.

II. EU 문화정책의 전개

1990년대 중반부터 실행된 문화정책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1~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1단계: 1990년대 중반부터 1999년까지 ② 2단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③ 3단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④ 4단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⑤ 5단계: 2021년부터 현재까지. 1단계는 문화정책 실행의 초기 단계로 문화의 지원 대상과 분야를 세분화하여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시기이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응용예술을 지원하는 칼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 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2천 650만 유로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소 3개국 이상의 회원국 간에 진행되는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삼았다.⁶⁾ 4년 기간 동안 총 518개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다.⁷⁾ 문화유산 보존 및 인식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된 라파엘(Raphael) 프로그램은 3천만 유로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며,⁸⁾ 1999년 종료될 때까지 224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다.⁹⁾ 그리고 도서 출판 및 유통, 문학번역을 지원하는 아리안(Ariane) 프로그램은 1996년 7백만 유로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었으며¹⁰⁾ 2000년 종료될 때까지 291개 프로젝트가 지원받은 바 있다.¹¹⁾

1단계의 경우 프로그램별 중점 분야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이러한 방식은 2단계에 접어들면서 달라졌다. EU의 다년예산안(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에 따라 2000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문화정책은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세 가지 프

6) DECISION No 719/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March 1996 establishing a programme to support artistic and cultural activities having a European dimension (Kaleidoscope).

7) 윤성원, 「문화정책」, 350쪽.

8) DECISION No 2228/9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1997 establishing a Community action programme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the Raphael programme).

9) 윤성원, 「문화정책」, 351쪽.

10) DECISION No 2085/9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October 1997 establishing a programme of support, including translation, in the field of books and reading (Ariane).

11) 윤성원, 「문화정책」, 351쪽.

로그래를 ‘Culture 2000 Programme’ 하에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었다.¹²⁾ 문화 영역에서의 ‘혁신’, ‘실험’, ‘협력’이 강조되면서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영역 1)과 ‘다년간의 체계적인 문화협력 활동’(영역 2). 그리고 ‘유럽 또는 국제적 차원의 문화 이벤트 개최’(영역 3) 활동이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 2006년까지 7년간 총 2억 3,650만 유로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509건의 프로젝트가 지원받았다.¹³⁾

3단계는 2007년부터 2013년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는 ‘Culture 2007-2013 Programme’이 운영되었는데 운영목표와 방식은 기본적으로 2단계와 유사하나 예산이 70%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고(총 4억 유로), 프로그램을 더욱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문화·교육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and Culture: DG EAC) 하에 교육·시청각·문화행정청(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ACEA)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는 문화 및 예술 작품 활동 지원보다도 초국가적 교류 활동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지원 분야도 ① 관련 종사자들의 초국경 이동 및 교류 증진, ② 문화·예술 작품의 초국가적 유통 증진, ③ 문화간 대화 장려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었다.¹⁵⁾

2014년부터 시작된 4단계는 문화정책의 방향성이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프로그램의 명칭이 ‘Culture Programme’에서 ‘Creative Europe’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문화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분야가 예술, 문학, 문화유산 보존 등 문화 및 예술 관련 사업들이었다면 Creative Europe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창조’에 역점을 두었다. 구성상의 큰 특징은 전체 Creative Europe 프로그램 안에 ‘문화 영역(Culture Strand)’과

12) DECISION No 508/200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February 2000 establishing the Culture 2000 programme.

13) 윤성원, 「문화정책」, 354쪽.

14) 윤성원, 같은 책.

15) European Commission. “Culture Programme (2007-2013),”

<https://culture.ec.europa.eu/resources/creative-europe-previous-programmes/culture-programme-2007-2013> (검색일: 2023. 6. 19); DECISION No 1855/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establishing the Culture Programme (2007 to 2013).

‘미디어 영역(MEDIA Strand)’ 이렇게 두 영역을 두고 있고 이와 별도로 두 가지 영역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문화간 영역(Cross-Sectoral Strand)’을 두었다는 점이다.¹⁶⁾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 유럽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면서 유럽의 문화적 유산을 증진한다.
- 유럽의 문화 및 창조 분야, 특히 시청각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¹⁷⁾

Creative Europe이 처음 도입되어 진행된 2014~2020년에 배정된 예산은 총 14억 627만 4천 유로¹⁸⁾로 이전 단계의 4억 유로에 비하면 세 배 이상 늘어났다. 대폭 예산이 확대된 배경에는 기존에 문화정책과 별개로 운영되어 오던 시청각정책(Audiovisual Policy)이 Creative Europe에 편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과 시청각정책을 모두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문화정책 하에 운영되던 Culture Programme 프로젝트 활동들을 ‘문화 영역’에 배치하고 시청각정책 관련 프로젝트들을 ‘미디어 영역’에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 영역과 미디어 영역 관계없이 초국가적 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은 ‘문화간 영역’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6) European Commission. “Creative Europe,” <https://culture.ec.europa.eu/creative-europe> (검색일: 2023. 7. 2); Regulation (EU) No 129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2014 to 2020) and repealing Decisions No 1718/2006/EC, No 1855/2006/EC and No 1041/2009/EC.

17) European Commission, “About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https://culture.ec.europa.eu/creative-europe/about-the-creative-europe-programme> (검색일: 2023. 7. 7).

18) Regulation (EU) No 1295/2013.

[표 1]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의 구성

Creative Europe	
<u>문화 영역(Culture Strand)</u> • 목적: 유럽의 문화 분야 지원 및 장려 • 지원 대상 - 예술적 창작과 혁신 촉진 - 유럽 및 세계적으로 유럽 콘텐츠 확산 지원 - 예술가들이 초국적으로 창작과 공연할 기회 마련 - 유럽 문화 및 창조 분야에서의 디지털 및 환경적 전환 촉진	<u>미디어 영역(MEDIA Strand)</u> • 목적: 유럽의 영화 및 시청각분야 지원 및 장려 • 지원 대상 - 기업 및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청각 산업의 가치 사슬간 협력 장려 - 우수인재 발굴 및 지식 공유 활성화 - 시장 수요 및 트렌드를 충족시킬 혁신적 솔루션 지원 -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으로의 소비자층 확대
<u>문화간 영역(Cross-Sectoral Strand)</u> • 목적: 문화 및 창조 분야가 공동으로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대처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도록 협력 강화 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분야간 초국적 차원의 정책 협력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의 존재감을 제고하고 정책 협력의 결과 확산 지원 - 문화 및 창조 분야간에서의 콘텐츠 창작, 접근, 확산 및 홍보를 위한 혁신적 방안 장려 - 뉴스 미디어에 의한 구조적 및 기술적 변화에 적응 지원 - 크리에이티브 유럽 데스크(Creative Europe Desk) 설립 및 활동 지원	

출처: Creative Europe 홈페이지¹⁹⁾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5단계로 New Creative Europe Programme이 실행 중이다.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총 24억 4천 2백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받았다.²⁰⁾ 이는 이전 단계에 배정된 예산보다 60%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프로그램 하위 영역으로 문화 영역, 미디어 영역, 문화간 영역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이전 단계와 같다. 다만 예산 집행에 있어 문화

19) European Commission, “About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https://culture.ec.europa.eu/creative-europe/about-the-creative-europe-programme>
 (검색일: 2023. 7. 7).

20) Regulation (EU) 2021/8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establishing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2021 to 2027)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295/2013.

영역은 전체 예산의 33%, 미디어 영역은 58%. 문화간 영역은 9%를 넘지 않게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²¹⁾ 사실상 미디어 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영역은 다시 콘텐츠 클러스터(Content Cluster), 비즈니스 클러스터(Business Cluster), 시청자 클러스터(Audience Cluster), 정책 지원 클러스터(Policy Support Cluster)의 네 가지 클러스터로 구분된다. 클러스터별 역점을 두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미디어 영역(MEDIA Strand)의 네 가지 클러스터

구분	기본 개념	주요 목표
콘텐츠 클러스터 (Content Cluster)	•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제작하여 유럽 시청각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초국가 협력에 역점을 둠	• 생산자와 콘텐츠 개발자 간의 협력 증진 •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 차원에서의 혁신 가속화
비즈니스 클러스터 (Business Cluster)	• 비즈니스 혁신, 확장, 재능을 유럽 시청각 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전파하기 위함	• 멘토링, 디지털 및 그린 기술 관련 전문가 육성 • 가치 사슬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B2B 교류 활성화 및 국제적 연계 강화 • 콘텐츠 및 플랫폼의 초국가적 유통 활성화
시청자 클러스터 (Audience Cluster)	• 유럽의 시청각물을 시청자와 연결함 • 다양한 플랫폼에 기반하여 시청자를 늘리는 데에 역점을 둠	• 모든 플랫폼에서의 시청자 수 증가 • 다양한 교육적·홍보 수단을 통한 젊은 시청자 확보 • 자막 지원을 통한 콘텐츠 접근 기회 확대
정책 지원 클러스터 (Policy Support Cluster)	• 주요 시청각 정책 이슈에 회원국 간 동일한 유럽식 접근을 통해 시청각 단일시장을 공고히 하고자 함	• 규제적 대화 • 정책 분석과 데이터 공유 • 트렌드에 대한 정보 공유 • 이해관계자와의 자문 협력 • 홍보 및 연계 활동

출처: Creative Europe 홈페이지²²⁾

21) *Ibid*

22) European Commission, “Creative Europe MEDIA Strand,” <https://culture.ec.europa.eu/creative-europe/creative-europe-media-strand> (검색일: 2023. 7. 7).

요약하면, 현재의 문화정책은 문화 및 창조 분야에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협력과 이를 소비할 소비자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0년간 문화정책의 초점은 ‘예술 및 창작 활동’에서 ‘시청각물 제작 활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초국가적 협업과 협력을 통한 ‘유럽적 문화공간(European Spaces of Culture)’의 글로벌 확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EU 문화정책의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 국제문화관계

앞서 언급한 대로 EU 문화정책의 정책적 방향성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변모해 왔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유럽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EU가 수립하는 다양한 전략적 방향성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2007년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의 문화에 대한 유럽적 아젠다(European Agenda for Culture in a globalising world)” 제안서에서 EU는 처음으로 국제관계에서 문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였다.²³⁾ 이 제안서 발표 이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시민단체 대표들도 국제문화관계에 대한 EU의 입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²⁴⁾ 이후 2009년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이 발효되고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이 신설됨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문화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²⁵⁾ 더욱이 2015년 유럽이

23) JOIN(2016) 29 final p.2.

24) Council Conclusions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external relations (2008/C 320/0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2 May 2011 on the cultural dimensions of the EU's external actions (2010/2161(INI)); European Commission, “Preparatory action 'Culture in external relations'” (2014),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f159b71e-a7e4-11e7-837e-01aa75ed71a1> (검색일: 2023. 7. 7); JOIN(2016) 29 final p.2.

25) *Ibid*

사회는 집행위원회와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²⁶⁾에게 EU가 대외관계에서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고,²⁷⁾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2016년 고위대표와 함께 “국제문화관계를 위한 EU의 전략(Towar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²⁸⁾ 이 성명서에서 제시된 파트너 국가들과의 문화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EU가 제시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문화협력 기본 틀

목표	세부 목표	구체적 방안
I.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으로서의 문화 지원	(a) 문화정책의 발전 지원	1) 신규 가입국 및 인근 국가들과 문화적 경험 공유 2) 문화정책 강화
	(b) 문화 및 창조산업 역량 강화	1) 창조산업으로부터 경제적 수익 확대 2) 창조 허브 및 클러스터 3) 창업가 정신 및 기술개발 4) 유럽 중소기업 지원 5) 지리적 협력의 틀 체계화
	(c) 파트너 국가 소속 해당 기관 역할 지원	1) 혁신적 파트너십 2) 문화도시 결연 지원 3) 문화수도프로그램 경험 공유 4) 구도심의 도시화 전략

26) 공식적인 명칭은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로 통상 줄여서 고위대표라 칭한다.

27)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Outcome of 3428th Council Meeting: Education Youth Culture and Sport,” 23-24 November 2015,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23111/st14411en15.pdf> (검색일: 2023. 7. 7); JOIN(2016) 29 final p.2.

28) *Ibid*

29)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EU와 과거 소련 위성국가 6개국과 체결된 협정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가 대상국이다.

30) 안나 린드 재단은 지중해 지역의 문화간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로 EU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리아, 튀르키예 간에 체결된 유로-지중해 파트너십 협약에 기반하여 2005년 설립되었다. 안나 린드는 2003년 피살된 스웨덴 외무장관이다. 재단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II. 문화 및 문화간 대화 촉진을 통한 평화로운 지역사회 간 관계 구축	(a) 문화종사자 간의 협력 지원	1) Creative Europe에의 참여 촉진 2) 동방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EaP) 국가들의 문화 진흥 ²⁹⁾ 3) 안나 린드 재단(Anna Lindth Foundation) 지원 ³⁰⁾
	(b) 문화간 대화 통한 평화 구축 조성	1) 평화안정기금(IcSP) ³¹⁾ 2) 청소년 문화간 대화 3) 유럽선거감시단(Election Observation Mission) 옵저버 트레이닝 4) 문화적 권리 증진
III. 문화유산에 관한 협력 강화	1)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 2) 문화유산의 불법적 유통 척결 3) 문화유산 보호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6)에서 재구성

[표 3]에서 제시한 EU 문화협력 기본 틀의 내용을 살펴보면, EU 또한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2005년 채택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UNESCO Convention)³²⁾의 당사자 중 하나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국제문화관계의 일환으로 삼으며, 이와 아울러 인권, 성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문화 및 언어 다양성 등의 ‘유럽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국제문화관계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이에 더 나아가 EU는 이러한 문화협력 기본 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를 전략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³⁴⁾ EU가 명시하고 있는 문화외교의 주체는 초국가 수준의 EU에서부터 EU 회원국과 회원국 내 문화기관, 시민사회 모두가 해당된다.³⁵⁾ 2008년부터 문화 분야에서도 개방형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이 도입되어 회원국 간 문화 이슈에 관해 EU 수준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기 때문에³⁶⁾ 그동안 ‘보

Anna Lindth Foundation, <https://www.annalindhoundation.org/> (검색일: 2023. 7. 2).

31) IcSP는 Instrument contributing to Stability and Peace의 약자이다.

32)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의 약자로 흔히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이라 불린다.

33) JOIN(2016) 29 final, p.2.

34) *Ibid.*, p.12.

35) *Ibid.*

36) *Ibid.*, p.13.

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하에 각 회원국이 우선적으로—그리고 사실상 문화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정책을 추진하던 방식이 EU 수준에서 공유되고 조율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reative Europe 도입 시점부터 입법 문서의 형식이 ‘결정(decision)’이나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³⁷⁾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은 단순히 공식적인 EU 문화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現) 국제문화관계 전략의 원천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위상은 이전의 문화 프로그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EU는 2016년 공동성명서에서 Creative Europe을 통해 유럽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유럽의 문화 및 창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문화관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³⁸⁾

후속 공식문서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노선을 반영하여 문화를 국제문화관계의 맥락 속에서 언급하고 있다. 2018년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문화를 위한 새로운 유럽적 아젠다(A New European Agenda for Culture)”³⁹⁾ 정책 제안서는 문화 및 창조 분야가 추구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가 본질적으로 지닌 예술적 가치와 아울러 성장, 혁신, 경쟁력과 연결되는 경제적 가치를 인지하여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의 힘을 사회통합과 사회적 웰빙을 위해 활용함과 아울러 교육 및 혁신에서의 문화 기반 창조성을 장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제문화관계를 강화하자라는 것이 골자이다.⁴⁰⁾

EU는 문화외교를 수행하는 방안으로 ‘EU 차원의 협력 강화’와 ‘학생, 연구자, 동문을 중심으로 한 문화간 교류(inter-cultural exchange)’를 제시하고 있다.⁴¹⁾ 전자의 경우는 문화외교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37) Regulation (EU) No 1295/2013; Regulation (EU) 2021/818.

38) JOIN(2016) 29 final, p.5.

39)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New European Agenda for Culture,” COM/2018/267 final.

40) Regulation (EU) 2021/818.

41) JOIN(2016) 29 final, pp.13-14.

강화하는 것과 EU 대표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활동을 장려하고 EU 문화 이벤트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연구자의 이동을 장려하고 학생 및 교직원 교류 활성화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EU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이 골자이다. 향후 EU의 국제문화관계 전략은 앞서 언급한 2016년 공동성명서에 기초하여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U의 대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세계 140곳에 설립된 EU 대표부(EU Delegation)를 총괄하고 있는 EEAS가 EU 국제문화관계 전략과 문화외교 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EU가 전개하고 있는 국제문화관계 전략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IV. EU 국제문화관계 전략의 대표사례: 유닉(EUNIC)

앞에서 논의한 EU의 국제문화관계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네트워킹’이라 할 수 있다. Creative Europe에서 ‘문화간 영역’을 도입한 것이나 2016년 공동성명서에서 제시한 문화협력의 기본 틀의 주요 내용 또한 지리적 협력, 문화종사자 간의 협력, 청소년 문화간 대화 등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시된 문화외교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또한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EU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 또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닉(EUNIC)을 살펴본다. EUNIC은 “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의 약어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문화기구간 연합체’로 번역될 수 있다. EU 27개 회원국과 준회원국가(associated country)가 운영하는 문화기관(예.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문화원 등) 간의 글로벌 문화네트워크이다. 이들 기관은 세계 곳곳에 설립되어 있는데 설립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현재 107개 국가에 139개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⁴²⁾ EUNIC은 EU의 전략적 파트너로 국제관계에서 문화의

42) EUNIC, <https://www.eunicglobal.eu/about> (검색일: 2023. 7. 3).

역할을 제고하여 유럽문화정책의 정의를 새롭게 규명해나가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⁴³⁾ 또한 EU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지식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⁴⁴⁾

[표 4] EUNIC 회원국 및 참여 문화기관

회원국	문화기관	회원국	문화기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문화원 / 유럽·국제부	라트비아	라트비아 투자 및 개발청
벨기에	왈롱-브뤼셀 인터내셔널 / 플랑드르 외교부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문화원
불가리아	문화부 / 불가리아 문화원	룩셈부르크	외교·유럽부
크로아티아	문화 및 미디어부	몰타	몰타 예술위원회
사이프러스	유럽프로그램 및 문화관계기구	네덜란드	더치컬처
체코	체코 센터	폴란드	외교부 / 아담 미츠키테비츠 문화원
덴마크	덴마크 문화원	포르투갈	카몽이스 문화원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문화원	루마니아	루마니아 문화원
핀란드	핀란드 문화·학문연구소	슬로바키아	외교부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스 / 문화부 / 프랑스 문화원	슬로베니아	외교부
독일	괴테 인스티투트 / 다문화활동지원협회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 / 스페인 국제협력 개발기구
그리스	외교부 / 헬레닉 문화재단	스웨덴	스웨덴 문화원
헝가리	문화 및 혁신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문화원
아일랜드	관광·문화·예술·게일어권·스포츠 및 미디어부	영국	영국문화원
이탈리아	단테 알리기에리 협회 / 외교 및 국제협력부		

출처: EUNIC 홈페이지⁴⁵⁾

EUNIC의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이루어진다. 1년에

43) *Ibid*

44) *Ibid*

45) *Ibid*

두 차례 개최되는 총회에는 회원국들의 해당 기관장들이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정회원 및 준회원 입회 심사와 새로운 클러스터 승인, 이사회 선출, EUNIC 활동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진다. 이사회는 EUNIC 총회를 주재하는 대표(President)와 부대표(Vice President), 세 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EUNIC 대표의 임기는 1년이고 나머지 이사진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⁴⁶⁾

EUNIC은 EU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화 네트워크 중 하나로 2014년부터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2017년 5월에는 집행위원회와 EEAS, EUNIC 간에 행정협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하여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 관계 구축과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민주화 및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가속화와 인권 및 기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⁴⁷⁾ 이 행정협정에서 제시된 기본 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① 문화에 대한 교차 횡단적 접근(cross-cutting approach): 문화는 예술과 문학뿐 아니라 문화간 대화, 교육 및 연구, 창조산업과 관광, 문화유산, 스포츠, 장인정신, 개발협력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이자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에 관해서는 교차 횡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보충성 및 상보성의 원칙(principles of subsidiarity and complementarity): 비(非) EU 국가들과 공동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충성 및 상보성의

46) *Ibid*

47) EUNIC, “Administrative arrangement signed between EUNIC and the European Union,” *EUNIC News*, May 17, 2017,

<https://www.eunicglobal.eu/news/administrative-arrangement-signed-between-eunic-and-the-european-union> (검색일: 2023. 7. 4); EEAS, EUNIC and European Commission, “Administrative arrangement for activities to be developed by the 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 (EUNIC) in partnership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and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jointly referred to hereinafter as ‘the two Sides’” (2017),

https://www.eeas.europa.eu/sites/default/files/2017-05-16_admin_arrangement_eunic.pdf (검색일: 2023. 7. 4).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참여 회원국 간에 국제문화관계에 대해 단일하게 대응하여 프로젝트의 유럽적 차원을 제고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가변형상의 원칙(principle of variable geometry): EU와 EUNIC 양측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각자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수행역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한다.
- ④ 공동창작의 원칙(principle of co-creation), 상향식 실행 원칙(principle of bottom-up implementation), 공동출자의 원칙(principle of co-financing):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업시 양측이 함께 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업의 방식은 상향식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그리고 재정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⁴⁸⁾

그리고 EU와 EUNIC이 2017년 행정협정에서 합의한 우선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문화 및 문화간 대화 촉진을 통한 평화로운 지역사회간 관계 구축
-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으로서의 문화 지원
- 문화유산에 관한 협력 강화⁴⁹⁾

이는 앞서 언급한 2016년 집행위원회와 EEAS 간의 공동성명서에서 제시된 문화협력 기본 틀의 내용과 일치한다. 집행위원회와 EEAS, EUNIC은 2019년에 공동 가이드라인(Joint Guidelines)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2017년 행정협정의 기본 원칙을 발전시킨 문서로 파트너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EU가 EUNIC의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⁵⁰⁾ 이 가이드라인에서 명

48) *Ibid*

49) *Ibid*

50) EUNIC, “Published: Joint Guidelines on the partnership between EUNIC, the EEA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EUNIC News*, June 27, 2019,

시한 EU-EUNIC 파트너십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공동의 전략적 비전 개발: 공동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좋은 문화관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한다. 또한 EU 대표부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② 문화관계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 기존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관련 주제에 관한 EUNIC 웨비나를 개최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 ③ 파트너십 고도화: EU 대표부와 EUNIC 클러스터 간의 파트너십을 조율하는 상주 코디네이터를 지정한다(“문화 포컬 포인트(cultural focal point)”). EU 대표부와 EUNIC 클러스터 간의 미팅을 정례화하고 지식을 공유한다. EU 대표부와 EUNIC 클러스터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미나에서 공동세션을 개최할 것을 제도화한다. 정보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해 EU 대표부와 EUNIC 클러스터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한다.
- ④ 프로젝트 공동 설계 및 실행: EU와 EUNIC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가변형상 원칙을 존중하고 유럽적 차원을 공고히 한다. 공동 출자 모델을 개발하고 파트너십을 위한 출자모델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공스토리와 공동 활동을 공유한다.
- ⑤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프로젝트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프로젝트가 문화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⁵¹⁾

이후 EUNIC은 2020년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⁵²⁾를 발표하

<https://eunic.eu/news/published-joint-guidelines-on-the-partnership-between-eunic-the-eeas-and-the-european-commission> (검색일: 2023. 7. 5); European Commission, EEAS and EUNIC. 2019. “Joint Guidelines: EUNIC—EEAS—EC partnership,” https://eunic.eu/media/site/18f21e909a-1607447112/joint-guidelines-eunic-eeas-ec-partnership_final.pdf (검색일: 2023. 7. 5).

51) *Ibid*

52) EUNIC, “New EUNIC Strategic Framework 2020-2024,” *EUNIC News*, June 4, 2020, <https://eunic.eu/news/eunic-strategic-framework-2020-2024> (검색일: 2023. 7. 6);

었는데 2019년 공동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목표 1: 회원국 및 회원기관과 전세계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문화관계를 강화한다.
- 목표 2: EUNIC은 국제관계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주창하고 EU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목표 3: 문화관계에서 신뢰할만한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 네트워크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⁵³⁾

앞서 언급한 2017년 EU-EUNIC 행정협정과 2019년 공동 가이드라인, 그리고 2020년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모두 EU가 새롭게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문화관계의 의미와 방향성을 담고 있는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 모두 공통으로 EU의 국제문화관계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EUNIC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한 점은 초국가층위와 하부국가층위 간의 연계와 협력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EU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에서 자칫 간과되기 쉬운 EU와 하부국가 행위자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문화분야에서도 EU와 회원국 정부, 그리고 회원국 내 문화관련 기구들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EU 회원국 정부와 회원국 내 문화기관들이 EU의 ‘유럽적 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에 도입되어 2023년까지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유럽적 문화공간 구축 프로젝트는 EU 밖에서 유럽과 현지 파트너 기관 간의 혁신적 문화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혁신적 문화협력 사례를 평가하고 정책적 제안을 수집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EU가 국제문화관계를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⁴⁾ 2020~2023년 기간 동안

EUNIC, “EUNIC Strategic Framework 2020–2024” (2020)

<https://www.eunicglobal.eu/media/site/fbf4c8e726-1591718794/eunic-strategic-framework-2020-2024-final.pdf> (검색일: 2023. 7. 6).

53) *Ibid*

선정된 사업 리스트는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EU 문화정책의 30년 변천 과정을 통해 정책적 방향성의 변화와 아울러 최근 EU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문화관계 전략에 관해 관련 공식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제로 EU의 국제문화관계 전략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이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EU는 문화협력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를 FTA와 함께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FTA 협정 텍스트와 별개로 문화협력의정서가 부속서의 형식으로 마련되어 함께 채택되고 발효되었다. 또한 문화협력의정서의 발효 요건으로 2005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비준을 제시하였고, 실제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한국 정부는 2010년 4월 1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다.⁵⁵⁾

EU가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 다양성협약까지 연계시킨 것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에 맞서 전통적으로 ‘문화주권’을 강조해 온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 대한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제문화관계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화협력의정서의 내용은 앞서 논의한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에서 강조한 시청각물 공동제작과 문화중사자 교류 활성화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협력의정서에 따라 설립된 한-EU 문화협력위원회(Committee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도 매년 정례회의를 통해 이에 관한 활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양

54) European Spaces of Culture, <https://europeanspacesofculture.eu/about> (검색일: 2023. 7. 6).

55) 권현호,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 통상법적 지위」, 『국제경제법연구』, 제12권 제3호 (2014), 69쪽.

국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EU 카툰 커넥션(Cartoon Connection)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양자 애니메이션 종사자들 간에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및 수출입 기회를 모색하는 장(場)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 행사가 개최된 배경에는 EU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EU 애니메이션 협회 카툰(CARTOON)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유일하게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제안하면서 실행된 것이어서 EU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⁵⁶⁾ 영화 공동제작도 이루어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2013), 박흥식 감독의 <두 번째 스물> (2015), 노경태 감독의 <블랙스톤> (2015), 윤재호 감독의 <뷰티풀 테이즈> (2018) 등이 제작된 바 있고, 그 중 체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설국열차>는 관객 수가 천만 명에 육박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⁵⁷⁾

앞 장에서 소개된 유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 내 EUNIC Korea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가동 중이다. 주한 유럽 지역 대사관 소속 문화원 중 총 10개국⁵⁸⁾ 문화원이 EUNIC Korea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유닉 영화제(EUNIC Film Festival)’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럽 영화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기회로 마련되는 이 영화제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EU 문화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EUNIC Korea 영화제의 주제 및 상영작에 관해서는 [부록 2]를 참조). 2022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자 간의 문화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⁵⁹⁾ 앞서 제시한 예들은 EU의 이니셔티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한국에서도 실행하게 된 사례들이라면, EU의 성공 사례가 벤치마킹이 되어 변형되어

56)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윤성원, 「한-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7권 2집 (2016).

57) 정영식, “영화 ‘설국열차’, 천만 관객 타이틀 달지 못하고 아깝게 930만...,” 『중부일보』, 2020년 1월 5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90582> (검색일: 2023. 7. 5).

58)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슬로바키아, 독일, 체코, 영국이다.

5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유럽연합국가문화원과 교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22년 5월 4일 보도자료,

<https://www.arko.or.kr/board/view/4057?cid=1804523> (검색일: 2023. 7. 3).

수용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Culture City of East Asia: CCEA) 프로그램이다. 2012년 3국 문화장관 간의 합의로 도입된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매년 나라별 한 도시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문화 이벤트를 기획하여 운영하는 포맷으로 운영되고 있다.⁶⁰⁾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개발·육성하는 프로젝트도 2004년부터 실행 중에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총 5억 3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⁶¹⁾ 이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⁶²⁾

브래드포드(Bradford)는 EU가 제시한 규제와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과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켜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라고 명명한 바 있다.⁶³⁾ EU 문화 슬로건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in diversity)’에서도 알 수 있듯이, EU 문화정책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이며, 바로 이러

- 60)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Culture Cities in East Asia (CCEA),” https://www.tcs-asia.org/data/etcData/MEC_1592466882.pdf (검색일: 2023. 7. 4); 동아시아문화도시 역대 개최도시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연도	한국	중국	일본
2014	광주	광저우	요코하마
2015	청주	칭다오	니가타
2016	제주	닝보	나라
2017	대구	창사	교토
2018	부산	하얼빈	가나자와
2019	인천	시안	도시마구
2020	순천	양저우	기타큐슈
2021	순천	사오싱-둔황	기타큐슈
2022	경주	지난-원저우	오이타현
2023	전주	청두-메이저우	시즈오카

- 61) 문화체육관광부, 「20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https://www.cct.go.kr/index.php?cate=006¤tPage=1&type=view&num=86390> (검색일: 2023. 7. 5).
- 62)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 발표,” 2023년 3월 11일 보도자료, <https://www.cct.go.kr/index.php?cate=005002¤tPage=1&type=view&num=85247> (검색일: 2023. 7. 5).
- 63) Anu Bradford, *The Brussels Effect: How the European Union Rules the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한 성향으로 인해 EU 문화 프로그램은 어디서든지 유연하게 확대·재생산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기반한 EU 국제문화관계 전략의 핵심은 유럽적 문화공간을 전세계에 구축함으로써 자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글로벌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만큼 ‘한류’, ‘K-Culture’로 문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 또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EU 및 여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권현호,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 통상법적 지위」, 『국제경제법연구』, 제12권 제3호 (2014).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https://www.cct.go.kr/index.php?cate=006¤tPage=1&type=view&num=86390> (검색일: 2023. 7. 5).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 발표,” 2023년 3월 11일 보도자료,
<https://www.cct.go.kr/index.php?cate=005002¤tPage=1&type=view&num=85247> (검색일: 2023. 7. 5).
- 윤성원, 「한-EU 문화협력: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7권 2집 (2016).
- 윤성원, 「문화정책」, 이무성 편저. 『통합과 갈등의 유럽연합』 (높이깊이, 2017), 343-367쪽.
- 정영식, “영화 '설국열차', 천만 관객 타이틀 달지 못하고 아깝게 930만...,” 『중부일보』, 2020년 1월 5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90582> (검색일: 2023. 7. 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유럽연합국가문화원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22년 5월 4일 보도자료,
<https://www.arko.or.kr/board/view/4057?cid=1804523> (검색일: 2023. 7. 3).
- Anna Lindth Foundation, <https://www.annalindhfoundation.org/> (검색일: 2023. 7. 2).
- Bradford, Anu, *The Brussels Effect: How the European Union Rules the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on 'European Agenda for Culture in a globalising world',” COM(2007) 242 final.

Council Conclusions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external relations (2008/C 320/0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Outcome of 3428th Council Meeting: Education Youth Culture and Sport,” 23-24 November 2015,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23111/st14411en15.pdf> (검색일: 2023. 7. 7).

DECISION No 719/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March 1996 establishing a programme to support artistic and cultural activities having a European dimension (Kaleidoscope).
DECISION No 2228/9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1997 establishing a Community action programme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the Raphael programme).

DECISION No 2085/9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October 1997 establishing a programme of support, including translation, in the field of books and reading (Ariane).

DECISION No 508/200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February 2000 establishing the Culture 2000 programme.

DECISION No 1855/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establishing the Culture Programme (2007 to 2013).

EEAS, EUNIC and European Commission, “Administrative arrangement for activities to be developed by the 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 (EUNIC) in partnership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and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jointly referred to hereinafter as ‘the two Sides’” (2017),
https://www.eeas.europa.eu/sites/default/files/2017-05-16_admin_arrangement_eunic.pdf (검색일: 2023. 7. 4).

- EUNIC, <https://www.eunicglobal.eu/about> (검색일: 2023. 7. 3).
- EUNIC, “Administrative arrangement signed between EUNIC and the European Union,” *EUNIC News*, May 17, 2017, <https://www.eunicglobal.eu/news/aministrative-arrangement-signed-between-eunic-and-the-european-union> (검색일: 2023. 7. 4).
- EUNIC, “Published: Joint Guidelines on the partnership between EUNIC, the EEA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EUNIC News*, June 27, 2019, <https://eunic.eu/news/published-joint-guidelines-on-the-partnership-between-eunic-the-eeas-and-the-european-commission> (검색일: 2023. 7. 5).
- EUNIC, “New EUNIC Strategic Framework 2020-2024,” *EUNIC News*, June 4, 2020, <https://eunic.eu/news/eunic-strategic-framework-2020-2024> (검색일: 2023. 7. 6).
- EUNIC, “EUNIC Strategic Framework 2020-2024” (2020), <https://www.eunicglobal.eu/media/site/fbf4c8e726-1591718794/eunic-strategic-framework-2020-2024-final.pdf> (검색일: 2023. 7. 6).
- European Commission, “Culture Programme (2007-2013),” <https://culture.ec.europa.eu/resources/creative-europe-previous-programmes/culture-programme-2007-2013> (검색일: 2023. 6. 19).
- European Commission, “About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https://culture.ec.europa.eu/creative-europe/about-the-creative-europe-programme> (검색일: 2023. 7. 7).
- European Commission, “Creative Europe MEDIA Strand,” <https://culture.ec.europa.eu/creative-europe/creative-europe-media-strand> (검색일: 2023. 7. 7).
- European Commission, “Preparatory action 'Culture in external relations'” (2014),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f159b71e-a7e4-11e7-837e-01aa75ed71a1> (검색일: 2023. 7. 7).
-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owar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JOIN(2016) 29 final.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New European Agenda for Culture,” COM/2018/267 final.

European Commission, EEAS and EUNIC, “Joint Guidelines: EUNIC—EEAS—EC partnership” (2019),
https://eunic.eu/media/site/18f21e909a-1607447112/joint-guidelines-eunic-eeas-ec-partnership_final.pdf (검색일: 2023. 7. 5).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2 May 2011 on the cultural dimensions of the EU’s external actions (2010/2161(INI)).

European Spaces of Culture, <https://europeanspacesofculture.eu/about> (검색일: 2023. 7. 6).

Regulation (EU) No 129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2014 to 2020) and repealing Decisions No 1718/2006/EC, No 1855/2006/EC and No 1041/2009/EC.

Regulation (EU) 2021/8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establishing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2021 to 2027)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295/2013.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Culture Cities in East Asia (CCEA),”
https://www.tcs-asia.org/data/etcData/MEC_1592466882.pdf (검색일: 2023. 7. 4).

〈Abstract〉

Some Considerations of the EU's International Cultural Strategy

Sung-Won YOON*

It has been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Treaty of Maastricht officially introduced cultural policy in 1992. Cultural policy has been re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EU's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Sometimes the policy had to change its official programmes and its policy orientation had to change as well, accordingly. Cultural policy in earlier times implemented various cultural programmes in which different foci were given in providing financial support. Different programmes supported either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erforming art or literary translation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objectives of the programmes. From the year 2000 onwards, however, the existing programmes were converged into a single programme as the EU emphasised the effectiveness of operating different programmes in a single instrument. From 2014, the focal point of the cultural policy is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the EU introduced for the sake of establishing creative Europe, integrated audiovisual policy (which had existed separately from cultural policy) into the programme aiming at strengthening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the digital era. In addition, the EU proclaimed that it will actively make use of culture in its external relations in its communication on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While expanding various types of 'networks' through Creative Europe

* Associate Professor, Global Business Maj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Suwon (syoon@suwon.ac.kr)

at a global level, the EU makes attempt to establish 'European Spaces of Culture' worldwide in the end. By doing so, the EU pursues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actor in this field.

Key words: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Lisbon Treaty,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Creative Europe, European Spaces of Culture, network,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EUNIC, cultural diplomacy

원고접수일: 2023. 7. 08.

심사마감일: 2023. 7. 17.

게재 확정일: 2023. 7. 26.

[부록 1] ‘유럽적 문화공간’ 프로젝트 지원 사업(2020~2023)

1단계(2020~2021)			2단계(2022)			3단계(2023)		
국가	프로젝트명 (전체 예산/EU 지원 예산)	주요 내용	국가	프로젝트명 (전체 예산/EU 지원 예산)	주요 내용	국가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스리랑카	Colomboscope (87만 유로/ 5만 유로)	소셜 미디어 통한 창작 활동가의 교류 기회 제공	브라질	Politics of Nature (7만 5천 유로/ 5만 유로)	온라인 디지털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 경각심 부여	앙골라	Enter my Universe	장애인 대상 포용예술 페스티벌
			카메룬	Cameroonian Cultural Network (93,200유로/ 52,200유로)	디지털 플랫폼 구축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 시스템 구축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ARCHIPELAGO	초국적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미국	The Grid (11만 유로/ 5만 유로)	아트 씽킹을 신기술과 접목	중국	Diverse as We Are (149,500유로/ 54,000유로)	장애인 아우르는 국제 포용문화 페스티벌	중국	More Than Human	성정체성 주제 동성애 페스티벌
			인도	Moving Kolkata (46,753.78유로/46 ,753.78유로)	콜카타 트램을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전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Triángulo Teatro (75,925유로/ 5만 유로)	현대 유럽 연극작품의 디지털 해석	멕시코	Flash ACT (7만 유로/ 5만 유로)	예술, 과학, 기술의 교집합을 찾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콜롬비아	Firs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lm	국제 커뮤니티 영화제
			몰도바	MoldArte	디지털 플랫폼			

304 제14권 2집(통권 제30호, 2023년 7월)

				(60,500유로/ 49,500유로)	구축을 통해 문화종사자 간의 연대 강화		Festival	
몽골	Nogoonbaatar (5만 유로/ 5만 유로)	국제 에코 아트 페스티벌	페루	AfrOeste (7만 유로/ 54,000유로)	아프리카계 예술가 대상 창작 예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인도	The Restoration Toolbox	오픈 소스 디지털 기술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 참여형 플랫폼 구축
베냉	Urban Cult Lab'Africa (11만 유로/ 5만 유로)	예술가 레지던시, 라이브 이벤트	남아프리카	Right To Speak (65,000유로/ 55,000유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시민들의 글로벌 협력 및 역량 강화	케냐	Kibera Fashion Week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신개념 패션 산업 포맷 구축
			타지키스탄	Sayohati Sabz (54,200유로/ 54,200유로)	기후변화 대응 목적으로 지리적 경계 넘어 지역사회 및 예술행동가들과의 교류	모로코, 이집트, 알제리	Shaeirat	MENA 국가 대상 유럽 및 아랍어 시낭송 축제
에티오피아	Tibeb Be Adebabay (23,000유로/ 1만 유로)	참여형 길거리 페스티벌: 가상 전시	탄자니아	UMOJA (94,490유로/ 55,000유로)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적 협력, 교육, 민-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유도	팔레스타인	Mentorship and mobility programme for contemporary artists from Gaza, Jerusalem & West Bank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시각예술가의 예술적 잠재성 극대화
			우루과이	SIN LÍMITES (93,000유로/ 55,000유로)	예술과 사회 포용 관련 페스티벌; 공연, 아트 레지던시, 워크숍, 포용성 연구			

[부록 2] EUNIC Korea 영화제 주제 및 상영작(2016~2022)

연도	주제	상영작
2016	유럽 도시 이민자의 삶	• 화염의 바다 (이탈리아) • 저니 투 포르투갈 (포르투갈) • 아늑한 곳 (체코) •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독일) • 아름다운 청춘 (스페인) • 바벨의 정원 (프랑스) • 오베라는 남자 (스웨덴) • 네 열간이 (영국) • 김기덕 (폴란드)
2017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 미래의 도시—실험의 장 아시아 (독일) • 내일 (프랑스) • 공사 중 (스페인) • 프라하 도시계획 (체코) • 스톡홀름씨의 좋은 날 (스웨덴) • 갓 세이브 더 그린 / 더 플라잉 가드너스 (이탈리아) • 무빙 이미지 (영국) • 유리 채색 화가—믹셔 로트의 예술 (헝가리)
2018	유럽도시를 뒤흔든 1968	• 중국여인 (프랑스) • 부다페스트 로큰롤 (헝가리) • 파울과 파울라의 전설 / 부인, 저는 코끼리입니다 (독일) • 까마귀 기르기 (스페인) • 폭풍의 낙원 (이탈리아) • 페르소나 (스웨덴)
2019	변화의 바람	• 베를린은 독일에 있다 (독일) • 앤트로포이드 (체코/영국) • 바르샤바 1944 (폴란드) •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스웨덴) • 매혹의 스캔들 (헝가리) • 마사리크 (슬로바키아) • 페어웰, 마이 퀸 (프랑스) • 우리의 신념 (이탈리아)
2020	유럽도시로의 여행	• 다시 찾은 유토피아 (오스트리아) • 파리 투 마르세유: 2주간의 여행 (프랑스) • 노마: 뉴 노르딕 퀴진의 비밀 (덴마크) • 어둠 (이탈리아) • 새벽의 열기 (헝가리) • 자유노조의 잊혀진 전사들 (폴란드) • 슬로바키아를 그대와 (슬로바키아) • 오후 (독일) • 염소에 대한 이야기: 프라하의 옛 전설들 (체코)

2021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랜선 유럽 여행	• 살아남은 사람들 (헝가리) • 이탈리아 (이탈리아) • 클레오: 시간을 되돌리는 기적 (독일) • 요나스의 빛나는 여름 (슬로바키아) • 엠프티스 (체코) • 비커밍 아스트리드 (스웨덴) •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4 (폴란드) • 내 어깨 위 고양이, 밥2 (영국) • 산타 앤 컴퍼니 (프랑스)
2022	새로운 출발	• 엘리스의 하늘 아래 (프랑스) • 어나더 라운드 (덴마크) • 다크 블루 (스페인) • 천국에서 온 생쥐 (체코) • 소나타 (폴란드) • 남극에서 온 편지 (불가리아) • 나의 일자리를 찾아서 (이탈리아) • 타이거즈 (스웨덴) • 1945 (헝가리) • 107마더스 (슬로바키아) • 피닉스 (독일) •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 사라 (영국)